



## (주)프린벨트, 갤루스 대리점 계약·독점 공급 포장박스인쇄에서 후가공까지 인라인으로 OK!

(주)프린벨트(대표이사 이근성)는 지난 2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인라인 포장박스(Folding Carton) 인쇄 및 후가공 분야 최강자인 스위스 갤루스의 최신 인쇄설비를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독일 바이덴(Weiden)에 위치한 Gallus Stanz- und Druckmaschinen GmbH는 1923년에 설립, 스위스 쟁갈렌(St Gallen)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갤루스 그룹의 자회사이다. Gallus Stanz- und Druckmaschinen GmbH는 글로벌화된 갤루스 그룹의 포장박스인쇄산업 담당 부서로 고객 중심의 고품질 인라인 인쇄 및 후가공 생산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월한 신기술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으며, 2006년에는 독일 BHS를 전략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포장박스 인쇄 분야의 새로운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품질과 신뢰성의 대명사인 독일 BHS를 인수하면서 알루미늄 호일인쇄, 음료 포장인쇄는 물론이고, 인라인 다이커팅 등과 같은 인쇄 관련 장비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인쇄, 후가공, 컨버팅 3개 분야로 구성

인쇄, 후가공, 컨버팅 등 3개의 사업 분야로 구성됐으며, 평판 다이커팅은 원하는 인쇄물 사이즈를 인라인으로 커팅해 높은 생산성을 실현했다. 이러한 인쇄 및 후가공 장비의 인라인 구성은 다양성과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인쇄 환경에 적합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갤루스가 공급하는 제품군에는 글로벌 서비스 지원도 들 수 있다. 서비스 지원은 고객교육 프로그램과 고객 중심 교육을 통해 효과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현재 갤루스에 종사하는 직원은 약 600명이며 2013년 매출규모는 2200억원에 달한다. 일찍이 갤루스 그룹은 패키징 인쇄산업과 라벨 인쇄분야에서 탁

### 중앙 제어 장치로 인라인 작업 실현

기술 혁신은 갤루스 제품군의 심장에 해당하며, 최근 소개한 평판 다이커팅 기술은 갤루스의 명성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됐다. 진일보한 최신 다이커팅 기술은 박스인쇄 가공처리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향상했다. 또한 고객중심의 개별화와 유연성을 겸비함으로써 품질, 생산성, 신뢰성의 표준화 잣대로 자리 잡았다. 최신 기술과 새롭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중앙 제어 장치는 조작이 간단하고 정교한 인라인 인쇄와 후가공 작업을 실현했다. 갤루스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패키지 솔루션은 차별화를 꿈꾸는 인쇄 환경에 맞춰 우수한 기술의 성능과 최적의 신뢰를 보증한다. 특히 갤

루스 최신 모델인 ICS 670은 갈루스 R&D에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신기술의 집합체다. 경쟁사의 모델에 비해 높은 유연성과 인쇄품질, 후가공 인라인 컨버팅 처리를 통해 기술의 리더로 자리했다. 유연한 인쇄 후가공 기술을 통해 각종 그라비아, 플렉소, 스크린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인쇄방법을 인라인으로 실현했다. 라미네이팅, 금은박 또는 콜드호일, 스크린인쇄, 형압 등의 응용을 모두 포함하는데, 인쇄후가공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다양한 고객의 기대에 최소의 생산비용과 작업생산성을 고려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작업 공정을 인라인 로터리 또는 평판 다이커팅으로 생산 공정을 통합해 전체 작업 공정과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인쇄 품질을 개발, 유지하도록 했다. 평판 다이커팅은 기존의 다이커팅 판 제작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유지 및 세팅비가 저렴하며, 분당 220m의 속도를 실현함으로써 고속생산이 가능하다.

### 대량 인쇄물에 적합한 갈루스 인트로

갈루스 시스템은 기존의 유닛 교체 방식이 아닌 카세트 교체 타입 방식을 채용해 작업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 유닛 플러그 탈·장착만으로 쉽게 분리 및 설치가 가능하다. 모든 유닛은 모듈 타입으로 개별적으로 구동됨으로써 세팅 소요 시간이 짧고 기계운영 및 관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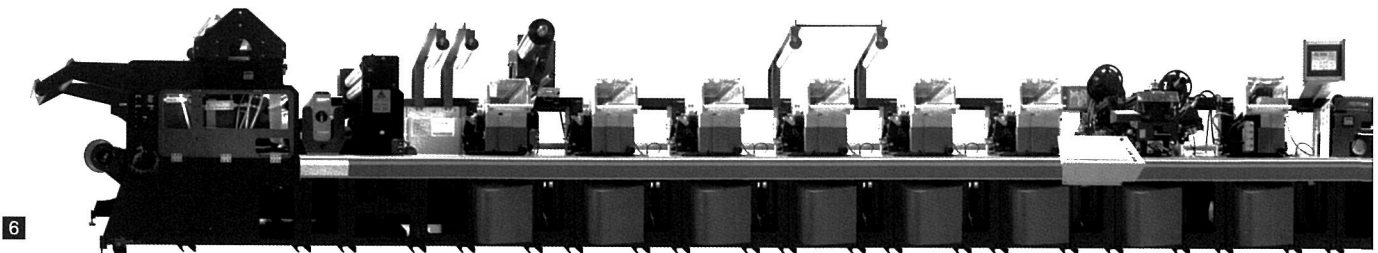
박스 인쇄에서 갈루스 플렉소 인쇄기 중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갈루스 인트로(Gallus Intro)모델은 음료, 제과, 피자 박스, 프랜차이즈 제품과 같은 대량 인쇄물을 위한 인쇄기다. 최대 용지 폭이 1.6m에 이르는데, 맞춤형으로 그 이상도 제작할 수 있다. 인쇄속도는 분당 600m에 달해 생산 속도와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은박과 콜드호일 등을 통해 추가 후가공 처리가 가능하다. 친환경 인쇄를 선호하는



유럽에서는 인트로 타입의 플렉소 인쇄기로 식품 관련 인쇄물과 대량 인쇄물을 인쇄하고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 상주 엔지니어 지원·본사와 24시간 핫라인

인쇄 및 생산 방식의 변화는 세계 글로벌 인쇄 시장의 트렌드로서 유럽과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쇄 시장의 요구이기도 하다. 갈루스는 급부상하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싱가포르에 지역 본부인 허브를 구축했다. 또한 각 나라의 상주 서비스엔지니어를 통해 서비스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사와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아울러 아시아 시장의 고객들에게는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동률과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2년 약정 서비스 계약제와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숙련된 서비스 요원이 준비돼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들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불필요한 기계 멈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갈루스 홈페이지는 [www.gallus-group.com](http://www.gallus-group.com)이며, 우리나라는 프린벨트가 독점 대리점으로 영업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



1.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폴 매틀레 갈루스 포장박스 마켓 매니저 2. 독일 바이엔의 갈루스 공장 3. 갈루스 ICS670 인쇄기 4. 갈루스 인트로 인쇄기 5. 갈루스 응용 포장박스 샘플 6. 갈루스 ICS510 인쇄기